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미사 독서: 류성진 스테파노, 김민정 켈마
 다음주미사 독서: 정진우 아우구스티노, 황성필 세례자 요한
 금주미사 복사: 신승원 로이
 다음주미사 복사: 우상인 사비나, 강선우 마르가리타
 금주 미사해설: 조은경 수산나, 김지원 카린
 다음주 미사해설: 전은숙 글라라, 최교은 소피아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1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296
 교무금: \$580
 합 계: \$876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사제관 (2월 24일, 3월 9일)
성교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오후 2시 45분 성당친교실 (2월 4, 18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8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집 (2월 17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2월 18일 저녁 8시 이글하이즈 커뮤니티 센터
2 구역	매달 첫째주 토요일 미사 후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맹자는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를 우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근거로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린아이를 보았다면 누구나 놀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를 구하려 했을 것 입니다. 이는 그 아이의 부모와 사귀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거나, 비난을 들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자는 그 이유가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못 본 척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서라고 설명합니다. 곧 사람은 누구나 불쌍히 여기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져 위험할 때 달려가 그 아이를 구하려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맹자』, 공손추 편 참조). 어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병을 깨끗이 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애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딱한 처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불행에 놓인 사람이나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 연민의 마음,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사랑을 지니신 참사랑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거나, 기쁜 일을 보면 이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잠시도 가만있을 수 없나 봅니다. 치유를 받은 그 환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널리 퍼뜨립니다. ‘자비’(compassion)라는 말은 ‘고통을 함께한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 말 ‘compassio’에서 나왔습니다. 자비는 ‘남의 고민을 덜어 주고 싶은 마음, 남의 고통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자비는 남의 아픔에 함께 하는 것, 그 아픔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은 남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 외로움을 나눕니다.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분명히 나에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불행에 빠진 이웃에게 전해진다면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피어날 것입니다.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
 thekcmm

Facebook
 www.facebook.com/
 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연중 제 6 주일]

2012년 2월 11일

<제 1 독서> 레위기 13,1-2.44-46

<제 2 독서> 코린토 1 서 10,31-11,1

회답송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
 ○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복음 1, 40-45
 그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였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주님은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오늘의 성가] 시작: 22 봉헌: 210 성체: 178 파견: 16



생명의 말씀

질병의 다양한 원인과 치유

문종원 베드로 신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마르 1,40)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어느 한정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질병에 걸리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매일 병으로 시달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대부분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질병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질병은 우리의 삶 안에서 전혀 의미가 없습니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질병은 죄에 대한 벌이나 보속으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구약성경에서는 엘리사에 의해서 나아만이 치유된 것이(2열왕 5 장) 두드러지게 드러날 뿐 의사나 치유자, 치유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질병에 관한 이러한 신학적인 관점은 예수님 시대에도 널리 퍼져 있었으며 제자들의 질문에서 잘 나타납니다.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이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요한 9,2) 질문은 그들이 여전히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고 믿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념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의 결과로 질병이 생겼다고 하는 제자들의 견해를 거부하셨습니다.(요한 9,1-7 참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이 경우에 하느님의 놀라운 일이란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베푸신 치유를 말합니다. 또한, 병이나 장애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서도 창조적으로 삶을 이끌어감으로써 삶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헬렌 켈러와 같은 사람). 왜냐하면 하느님의 능력과 창조성은 우리가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희랍 사고에서 치유활동,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 그리고 땅을 일구는 행위는 서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치유는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여지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하느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된 여인(루카 8,43-48 참조)에게 말씀하실 때 선택한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sozo 라는 영적·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는 모든 부분 곧,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단지 치유만이 아니라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죄는 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은 단순히 운명일 수 있는데, 이는 병을 지니고 태어나거나, 질병의 요인을 지니고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유행병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이 우리를 온전함과 개성화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다양한 가능성 때문에, 마음을 열고 편견을 갖지 않고 질병의 각 경우에 접근하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병의 원인과 그 의미를 탐구해야 합니다. 특히 심리적인 장애의 경우나 심리적인 부분을 동반하는 신체적인 장애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앞당겨서 그 의미를 아는 것은 병이 우리에게 고 있는 진실한 메시지를 가릴 수 있기 문입니다.

† 공지사항

- 오늘 미사 후에 신임 사목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신임 사목위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은 미사 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새 사목회 구성이 완료되면 곧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새로 오신 분들은 페이스북 성당 그룹에 가입해 주세요. 주보 1 면에 페이스북 그룹 주소가 있습니다. 또는 "매디슨 한인천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독서/간식/청소 안내: 독서는 월단위로 각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독서를 맡고 있습니다. 독서자가 간식을 준비하고, 청소는 독서 담당 구역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월은 1 구역이 독서/간식/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매월 마지막주에는 공동체 식사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 및 청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약정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회계에게 교무금 약정하고 교무금 카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클리 교리

미사 중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에는 왜 “아멘”을 하지 않을까?

아멘(Amen)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나 종교적 문구의 끝에서 동의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을 붙여 우리가 앞에 바친 그 기도문의 내용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즉 우리는 매 순간 하느님의 뜻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특히 미사 중에 바치는 ‘아멘’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기도와 예물기도 그리고 영성체 후 기도 끝에 교우들은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이는 교우들이 사제가 바치는 기도예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도의 끝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 마침 영광송을 사제가 바친 후에 신자들이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이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제의 영광송과 감사기도 전체에 온전히 마음으로 응답하며 동의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로 성체를 모시기 전에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교우들은 “아멘”이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는 성체의 모습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멘’은 기도를 마감하는 응답이며 주님의 뜻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동의하는 신앙고백입니다. 우리가 미사 중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 끝에 바로 아멘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성찬례 예식 중 영성체 예식의 시작으로 사제는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또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하고 교우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바치자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교우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는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런 다음 사제는 혼자 부속기도(附續祈禱: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를 바칩니다. 부속기도가 끝나면 모든 교우가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하고 찬미의 기도로 끝맺음을 합니다. 즉 주님의 기도 그 자체로 기도가 끝나지 않고 사제의 기도와 이어지는 영광송이 “아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끝에는 “아멘”을 붙이지 않습니다. “에즈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였다.”(느헤 8,6)